since 1986
SUNBO FAMILY
2012년 사업계획 해양 및 육상모듈 전문 초우량 상장기업
vol.97 2012년 2월 15일

World Best
SUNBO Family
선보공업(주) 선보유니텍(주) 선보하이텍(주)
홈페이지 www.sunboind.co.kr
E-mail sunbo@sunboind.co.kr
대표전화 051 · 261 · 3454
본사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517-2
사 훈 항상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자

신성장 동력 해양 플랜트의 메카

'감천공장' 본격가동!!

감천공장 도장공장 완공 및 조립공장 준공

우리회사는 지난해 상선 수주 급감 및 금융 위기 후유증 지속 등 기존 사업의 사업 환경 급변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육상 및 해양 플랜트 진입과 신 성장 동력 추진, 글로벌회사로의 성장과 신성장 동력 확보를 목표로 33,000평 규모의 감천공장을 매입하였다.

감천공장은 해양사업팀을 결성하여, 본격적인 해양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나, 공장시설 미비로 그간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번 도장 공장과 조립공장을 준공하게 되었다.

이번에 1차로 완공된 도장 공장은 전체 Size 130m x30mx18m(높이)규모로 2월10일 완공 되었으며, 4월30일까지 40mx250m 규모의 중, 대조 제작 공장이 완공 될 예정이다. 감천공장은 현재 Clov FPSO Oil and gas Process Package를 제작하고 있으며, 향후 Akuntun Dagi Package와 Pieter Schelte Vessel Package, 현대Shwe P/Form을 생산 할 예정이다.

도장공장 신축으로 인하여 대형구조물의 포장 및 제작물류비 절감, 시수단축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 하게 되었다. 또한 국내 우량 조선사 및 대형사들이 해양플랜트 사업의 확장에 발맞추어 더욱 고부가 가치의 프로젝트를 수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앞으로 감천공장은 우리회사의 제 3 창업 비전을 실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나아가 우리회사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 갈 성장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

대우조선해양 이동환 전무님 일행 당사 방문

제 3 창업 도약을 위하여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우리회사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지난 2월 6일 대우조선해양 이동환 전무님 일행이 현재 본격적인 해양프로젝트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감천 공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감천공장의 도장 공장 준공과 발 맞추어 이루어 졌으며, 우리회사의 신성장 동력을 이루어나갈 해양 플랜트사업을 소개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날 방문에서 이동환 전무는 해양 사업에 대한 우리회사의 과감한 투자에 대하여 높이 평가 했다. 또한, 도장 공장 운영에 대한 부분과 납품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이 오고 갔다.

앞으로도 우리회사는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선보하이텍 영암테크노폴리스協과 '영암사랑협약' 맺어

우리회사는 영암테크노폴리스경영자협의회와 지난 달 10일 협약식을 맺었다.

이번 협약식은 영암쌀 우선 구매와 장학금 기탁 등 영암사랑 실천에 앞장 서 나가기 위하여 이루어졌으며, 참여 기업중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77개를 대상으로 우선 영암쌀을 구입해 이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우리회사는 영암군민 사랑 장학기금 500만원을 기탁 하였다.

이러한 활동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작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회사는 이러한 형태의 자선활동들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며,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협약 및 후원에 전사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본사 신입사원 7명, 고등학교 졸업

지난 2012년 2월 9일 부산기계공고 4명, 해운대공고 3명의 졸업식이 있었다.

우리회사에는 총 7명의 직원이 올해 졸업하게 되었다. 최금식 대표이사는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2회 졸업생으로 학교운영위원장직을 역임하고 있으며 이 날 졸업생들을 위해 "사회에 첫 발을 내 딛는 여러분들과 함께 자리를 가지게 되어 기쁘다." 고 말씀 하신 후 사회 생활과 인생에 도움되는 좋은 말씀을 아끼지 않았다.

끝으로 졸업생들이 앞으로 사회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모든 직원들이 선배가 되어 잘 이끌어 주기를 기대해 본다.

무사고 · 무재해 안전의식 생활화 고취시키기 위해 모든 생활의 기초는 안전 !

우리회사는 김상진 안전환경팀장을 주축으로 매주 각 공장 단위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김장진 "팀장은 안전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며, 백마디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이 중요하다." 고 이야기 했다.

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세부 실천사항을 마련하여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생활화해야 함을 강조 했다. 우리회사의 경영기본요소인 안전은 타협이 있을 수 없는 절대 가치임을 깨닫고 산업재해를 추방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실천하는 안전으로 무재해 현장을 일구어 내야 하겠다.

첫째로, 안전보호구 미착용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안전보호구 착용의 생활화이다. 특히 취부 또는 용접을 하는 경우에는 일급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페인트 취급 작업을 할 때에는 방독마스크를 착용 유기용제에 중독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자동 절단기의 경우 보안경 착용을 생활화해야 한다. 본사 전 임직원 및 협력업체 관리감독은 현장 출입 시 안전벨트 착용 후, 출입 해야한다.

둘째로, 추락이나 위험이 있는 작업장소는 작업발판과 안전난간대 설치이다. 작업발판은 최소 두장 이상으로 설치하고 작업발판의 끝단부는 추락 방지용 안전난간대를 설치해야 한다. 작업발판 가설용 브라켓의 고정용 볼트는 고장력 볼트를 사용하여 2개소 이상 체결하여 볼트 파단으로 인한 발판 붕괴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하며 추락사고의 대부분은 작업발판과 안전난간대가 미설치된 상태에서 작업하거나 고소작업장소에서 안전보호구 착용을 소홀히 한 결과였음을 다 같이 유념해야한다.

셋째로, 매일 작업 시작 전 각종 치·공구 점검을 철저히 해야한다. 불량 치·공구의 사용으로 인해 부재가 전도되거나 낙하하여 나뿐만 아니라 내 동료까지 다치게 하는 일이 없도록 각종 치·공구의 사용 전 점검을 생활화해야 한다.

넷째로, 전기시설물에는 반드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접지를 실시하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전기콘센트, 플러그, 전선은 접지 가능한 구조의 제품을 사용하여 누전, 단락 또는 절연 파괴에 의한 감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한다. P.E 되어 있는 블록에서 용접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절근 또는 기타 철판 등으로 어스를 잡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규정된 어스선을 사용하는 것을 실천해야한다.

다섯째로, 그라인더 커버를 임의 절단하여 사용하지 말도록 해야한다. 그라인더 커버는 작업 시 여러분의 손을 보호해 줄 뿐 아니라 숫돌 파손 시 비산되는 파편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여섯째로, 작업장내의 모든 차량은 시속 1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여 운행해야한다. 또한 지게차는 면허가 있는 직원만 운전 하도록한다. 매년 동종 사업장에서 지게차 및 과속운전으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함으로써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당 사는 이런 사고를 겪지 않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전력 사용량 급증에 따른 절전 생활화에 동참 합시다.

최근 삼한사온을 잊은 한파가 계속되면서 겨울철 난방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1월 한 달 간, 순간 최대 수요 전력을 5차례나 갱신했다. 우리 회사도 허가되지 않은 개인 난방기기를 사용하는 등, 전력소비가 늘면서 사무실 전기가 차단되는 경우를 몇 차례 볼 수 있었다.

전력소모가 많은 전력사용기기는 사내에서 사용을 자제하여야 하며 불필요하게 과잉 운전되고 있는 부분은 찾아 개선시켜야 한다. 검증되지 않은 난방기기는 과도하게 전력을 소비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화재까지 불러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무실에서도 실내 온도를 영상 18~20도 사이로 유지하며 불필요한 플러그 뽑기, 창문 및 출입문 닫기, 검증 안된 개별 난방기기를 자제하는 등 전력 절감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개인 PC는 시스템 절전모드를 활용하여 자리를 비울 경우 소비 전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 할 것이다.

Inside SUNBO 회사소식

사내소식지 게시판 신설

통합관리를 통해 간편하게 이용하도록 개편

급변하는 경쟁 환경속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회사는 그룹웨어 및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내의 소식을 전달 해왔다.

그러나, 좋은 정보들이 흩어져 있어 찾기가 쉽지 않아 금번 통합관리를 통해 누구나 그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 하였다.

접속방법 : 그룹웨어를 실행하여 전사게시판의 사내소식게시판 클릭
내 용 : 사보, 뉴스레터, 조선속보, 일일주요기사

Life 추천여행지

문화마을로의 초대 감천문화마을 이야기

알록달록한 문화의 공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감천동 문화마을은 산자락 아래 계단식으로 형성된 집들이 한 폭의 그림처럼 형성되어 있어 "부산의 마추픽추"라고 불려지는 부산의 대표적 문화마을이다. 골목 곳곳에는 조성된 지역예술가들에 의해 조성된 조형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어 방문내내 잔잔한 감상에 젖게 된다.

2010년 마을재생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진행되었던 "미로미로 골목길 프로젝트"는 어둠의 집, 사진갤러리, 빛의집 등 테마가 있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연인과 함께 미로처럼 얽혀진 골목길을 찾아 다니며 데이트하기에 안성맞춤이다. 마을입구에 위치한 관광안내소인 하늘마루는 '전망'이라고 불리는데 2층으로 올라가면 용두산공원과 부산남항이 한눈에 들어오는 멋진 풍경에 도취되며 산을 따라 층층히 들어선 집들사이로 만들어진 산복도로가 이색적인 풍경을 제공한다. 또한 감천문화마을은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공간도 곳곳에 위치해 있다. 체험공간과 카페, 갤러리샵등 도자기체험관, 천연염색 체험 프로그램, 아트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어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체험을 할 수 있어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감천문화마을은 전체가 하나의 예술작품이며 관광지인 것이다.

한적한 휴일 가족 혹은 연인과 함께 감천문화마을에서 색다른 경험을 해보자.

감천 문화마을 가는 방법

자가용 - 네비게이션 '감정초등학교'
(주차는 감정초등학교 공영주차장.)
대중교통 - 토성역 6번출구에 내려서 부산대학병원 암센터 앞 마을버스 2, 2-1, 1-1번 이용해서 감정초등학교 하차

Cam Card

'스캔버튼'하나로 명함속 내용을 내폰 속으로
명함스캐너 '캠카드'

업체간 혹은 개인간 주고받은 명함을 다시 폰에 저장하기 불편한 분들을 위해 스캔버튼 하나로 명함속 내용을 내폰에 꼭 맞게 저장시킬 수 있는 유용한 어플을 소개한다.

명함을 평평한 곳에 놓은 후 촬영버튼을 누르면 5초 이내에 명함의 모든 정보들이 내폰에 저장된다. 저장된 내용은 주소록에서 확인 가능하며 명함 이미지 또한 저장되어 혹시나 스캔해서 오류가 났을때 유용하다.

명함이 곧 경쟁력인 직장인들에게 꼭 필요한 어플로 주요고객사 미팅, 협력사 미팅 등 다양한 부분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리라 생각된다.

易地思之

바꿀역 땅지 생각할사 갈지

역지사지 : 입장을 바꾸어 상대편의 처지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보고 이해하라는 뜻이다.

수술을 방금전에 마친 항문과 의사가 배가고파 식당에 갔다. 그런데 종업원이 엉덩이를 긁고 있는게 아닌가. 그래서 의사가 이렇게 물어봤다."혹시, 치질 있으신가요?"
그러자 종업원이 황당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손님, 메뉴판에 없는 음식은 시키시면 안됩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 입장에서 상대방이나 사물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전년 새해에는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Inside SUNBO 우수협력업체

'기쁨과 감사' 한마음으로 직원들과 함께 일구는 회사
시온테크 - 김효승대표

이번 협력사 탐방으로 소개 될 시온테크는 1997년 창업 이후 15여년째 해양구조물과 블록 등을 주요생산품으로 해양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업체이다. 우리회사와는 2004년 케이슨을 시작으로 첫 인연을 맺어오고 있다.

김효승대표와 첫 만남은 친절과 웃음, 여유가 느껴지는 기분 좋은 만남으로 시작되었다.

김대표는 지난 케이슨 작업 현장의 일을 회상하며 선보공업과의 좋은 추억을 전해주었다. 납기가 촉박해 야간 작업이 빈번했는데 급하게 측정장비가 필요해 밤늦게 선보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다음날도 아닌 당일 밤 간식 거리와 함께 측정기구를 가져와 너무 고마웠고 지금도 잊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 고마움으로 서로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되었고 현재도 믿음과 고마움을 간직하고 있다고 한다. 그 후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시온테크는 년 매출 100억 정도의 규모이며 우리회사가 25% 정도를 차지한다고 한다.

자신이 인복이 많다며 직원들의 자랑을 이야기하는 그의 모습에서 직원들의 사랑이 느껴졌다. 한마음으로 일을 해주는 직원들이 있어 너무 고맙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직원들과 함께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대표는 올해 매출액을 떠나 조선보다 해양쪽으로 초점을 맞춰나가는 한해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우리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매출의 50% 이상을 선보와의 협업으로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전하며 감천공장에서도 많은 협업을 이루고 싶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많은 일을 선보와 함께 해 왔으면 한다고 말하는 모습에서 우리회사에 대한 신뢰가 느껴졌다.

선보에대해 느낀점을 묻자 김대표는 "선보공업은 배울점과 장점이 많은 회사이다. 꼭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고 싶다. 선보의 선결재 배려가 작은것 같지만 정말 큰 힘이 된다. 그로인해 나또한 하청업체에게 똑같이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게 되므로 선보는 협력업체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게 한다."

앞으로도 직원들과 어려움을 극복하며 한 단계 도약 하겠다는 그의 힘찬 발걸음이 올해 해양프로젝트 개발로 감천공장 가동을 실현한 선보와 함께 이루어 나가길 기대해 본다.

Run SUNBO Run 생생 현장의 소리

"사고 없는 직장을 만들겠습니다!" – 영도공장 안전파트 박점철 기감

Q.입사는 언제 하셨나요?
작년 10월1일 입사 하였습니다. D조선 안전담당으로 정년퇴직 후 선보공업 영도공장 기감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Q.현재 맡은 업무와 업무중 가장 신경쓰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영도 구평공장 안전담당일을 하고 있으며 비올리아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천공장도 순회하며 정기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안전담당이다 보니 직원들이 사고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자료를 이용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Q.일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신가요? 일하시는 직원들의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가장 시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변화하고 새롭게 적응 하는걸 귀찮아하는 직원들의 심리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현재는 많이 시정되어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안전에 대한 의식이 계속해서 좋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평소 어떤 마음가짐으로 근무하시나요? 제가 지금껏 경험해온 안전에 대한 지식으로 대기업에 안전활동의 노하우를 전달한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한발 앞서 사고없는 직장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다같이 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안전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동료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안전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정리정돈과 질서를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일을 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첫걸음이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몸을 사랑하고 건강하게 아무 사고 없이 열심히 근무해 주셨으면 합니다.

Q.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쾌적한 환경조건을 만들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 건강이 허락하는 한 직원들과 노력하여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 하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Run SUNBO Run 칭찬 릴레이

항상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 구평공장 팽창산업 하경원 총무

자신은 전혀 칭찬받을 일이 없다며 수줍게 이야기 하지만 누구보다 선보에 대한 열정과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닌 구평공장 팽창산업 하경원 총무, 그가 2월의 칭찬릴레이 주자로 선정되었다.

Q.이번호 선보가족 칭찬릴레이 주자로 뽑히셨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저는 칭찬받을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원래하는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이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직원분이 칭찬 해주시니까 고맙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Q.현재하시는 일은 무엇이며, 평소 어떤 마음가짐으로 근무 하세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챙기는 일 입니다. 때론 현장일도 함께 병행하고 있어요. 배관일과 절단기, 누수호수점검, 보완작업 등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소 저는 즐겁게 일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왕 하는 거라면 즐겁게 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Q.선보에서 일하신지 3년이 지나셨는데 소감은? 원래 저는 신발공장의 관리 사원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조선쪽일은 처음이고요 일하기 전의 회사 이미지는 회사자체의 분위기가 왠지 투박하지는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일을 하다가 느낀 점은 회사 사람들이 부드럽고 따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가정적인 분위기, 배려와 이해를 항상 해줘서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Q.가족이나 동료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동료들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면 항상 최선을 다하자! 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힘들다는 생각보단 최선을 다해 성과물을 만들었을때 성취와 보람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Q.다음 칭찬 릴레이 주자를 추천한다면? 정용수 주임을 추천합니다. 일하면서 자주 뵙게 되는데 항상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배울 점이라 생각하고 상대를 배려해주는 점이 좋게 보여 다음 칭찬릴레이 주자로 추천합니다.

칭찬릴레이는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아름다운 문화가 선보에 정착되기를 바라며 펼치고 있는 캠페인 입니다.

Run SUNBO Run 축하합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다대공장

설계부	최원섭 (2/ 4), 유성진 (2/ 9) 오성진 (2/21)
개발설계1팀	김동관 (2/ 9), 옥승민 (2/24) 이영우 (2/28)
울산설계	오영석 (2/15), 손수호 (음1/10)
감천설계	유시욱 (음1/30),
기술영업	박종혁 (음2/7)
1 공장	노재태 (2/ 1), 이철현 (2/ 1) 김수한 (2/ 2), 안종록 (2/18) 김정실 (2/26)
2 공장	김명운 (음1/23), 최복식 (2/ 2) 김정선 (2/ 3) 박현호 (2/10) 김중학 (2/11) 김정환 (2/23) 성기갑 (2/26)
3공장	강동주 (음1/19) 장기봉 (2/ 1) 임종화 (음2/8) 최광욱 (2/21)

구평공장

자재운영	박관호 (2/ 9)
Q.A	김영호 (2/19)
생산팀	오상호 (2/ 1), 류시헌 (2/ 2) 김명진 (2/ 3), 김계순 (2/19) 오우정 (2/27)

입사기념일

다대공장

설계부	유성진 (2/ 9), 김건우 (3/18) 곽봉제 (4/25)
1공장	차성오 (5/13), 이상훈 (10/31) 신승훈 (12/18), 강현욱 (12/27)
2공장	권영식 (7/19)

구평공장

생산관리	김광욱 (2/ 1)
자재운영	박관호 (2/ 1)

영도공장

생산관리	김지훈 (2/ 2)

Run SUNBO Run 틀린 그림 찾기 - 5곳을 찾아 주세요!

이달의 사진 - 경주 '불국사' 사진

SUNBO FAMILY 만드는 사람들
제작 · 편집 안정빈 과장, 강두호 기자 배포 · 인쇄 환경문화연합 UEC 051) 255-0887